

‘노는 브로’ CP “박용택 양파 같아...진실된 인생 이야기 전할 것”

‘노는 언니’ 스펠오프 ‘노는 브로’ 제작발표회

“은퇴한 선수들 함께 노는 모습 보여줘 신선”

‘노는 언니’의 스펠오프 시리즈 ‘노는 브로’가 웃음과 함께 남자 스포츠 선수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예고했다.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타카스트 E채널 ‘노는 브로’ 제작발표회에는 방현영 CP와 박지은 PD, 박용택, 전태풍, 김요한, 조준호가 참석했다. 구본길, 김형규는 사정상 제작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방현영 CP는 “‘노는 언니’ 덕분에 기회를 확장하게 됐다”며 “남자 스포츠 선수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기시감을 돌파하기 위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고 싶었다. 박용택 선수는 패선에 대한 집요함이 있고 안경도 정말 많은데, 반전의 모습이 있다. 양파 같다. 다른 분들도 의외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태풍 선수는 전업 육아를 하고, 김요한 선수는 게임회사 이사로 재직중이다. 스포츠 선수들은 이른 은퇴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조준호 선수는 판정 반복 이야기가 유명했지만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졌다.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고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 스포테이너로 예능감을 공급해하기도 하지만, 코미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진실된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PD도 “남자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 은퇴 후 느낌, 수익은 줄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번아웃 증후군 등을 잘 풀어보면 ‘노는 브로’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노는 언니’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에 치중했다”며 “이분들의 인생을 증명해주려 각 선수들의 가족들이 지원사격을 해준다”고 밝혔다.

KBO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야구선수인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박용택은 “은퇴 후 여러 가지하고 싶었다. 저를 어디서 필요로 할지도 궁금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오긴 했는데 일회성 방송이었다. 고정으로 은퇴한 선수들끼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좋았다.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BL의 손꼽히는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던 전태풍은 은퇴 후 3남매 육아에 집중하고 있다. 전태풍은 “작년에 은퇴하고 걱정이 있었다. 맨날 육아를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행복하다”며 “멤버들을 만나 행복하고 만족한다. 너무 잘 맞는다”고 웃었다.

배구선수 출신 김요한은 “콘셉트 자체가 좋았다. 운동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노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신선했다. 재미난 사람들이 멤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2년 런던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는 “십의 당시 백수여서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행복했다”며 “유도는 비시즌이 없다. 훈련 스케줄이 빽빽해서 다른 종목 선수들과 어울릴 틈이 없었다. 멤버들이 너무 잘해줘서 즐겁다”고 말했다.

현재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활약하고 있는 만큼, 예능 톨모델도 꼽았다.

박용택과 김요한은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을 언급했다. 박용택은 “(안정환처럼 해설과 예능)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김요한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필요한 말과 웃긴 포인트를 잘 짚더라. 보고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준호는 이중격투기 선수 김동현을 꼽았다.



‘노는 언니’에 이어 ‘노는 브로’까지 탄생하면서 또다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방현영 CP는 “‘노는 브로’가 자리를 잘 잡으면 ‘노는’ 시리즈에 대한 브랜드에 신뢰가 생기고 더 발전된 소재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세리씨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경지에 오른 분들조차도 (본인의 종목을) 즐기

면서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 훈련만 하다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비단 스포츠인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이 공감과 위로를 많이 받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는 브로’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50분에 방송된다.



이준호·이세영, ‘웃소매 붉은 끝동’

애절한 궁중 로맨스 드라마

MBC 새 수목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에 이준호, 이세영 출연이 확정됐다.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살아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재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드라마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할 예정이다.

장기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과 ‘군주-가면의 주인’을 공동 집필한 정

해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이준호는 간간하고 오만한 완벽주의 왕세손 ‘이산’ 역을 맡았다. 성군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남은 인물이다. 당찬 궁녀 성덕임을 만나면서 사랑관 면모를 서툴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세영은 궁녀 ‘성덕임’ 역을 맡았다. 훗날 ‘의빈 성씨’가 되는 덕임은 치열하고 긴박한 궁중 안에서 자신만의 ‘소·화·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로, 이산과 만나면서 인생의 격변을 맞는다.

헤이즈, ‘해픈’ 트랙리스트 공개...타블로 참여

헤이즈(Heize)의 새 EP 트랙리스트와 피쳐링 라인업이 공개됐다.

12일 그의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식 계정을 통해 헤이즈의 일곱 번째 EP ‘해픈(HAPPEN)’ 트랙리스트 이미지를 공개했다. EP는 싱글 음반과 정규 음반의 중간에 위치하는 음반으로 4~8곡이 수록된다.

‘해픈’은 헤이즈가 약 11개월 만에 선보이는 일곱 번째 EP이자, 지난해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합류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앨범이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앨범에 수록된 여덟 트랙의 제목 및 크레딧, 피쳐링 아티스트 등의 정보가 적혀 있으며, 이미지 우측에는 눈을 감고 있는 헤이즈의 옆 모습을 볼 수 있다.

앨범 ‘해픈’은 타이틀곡인 첫 번째 트랙 ‘해픈 우연’을 포함해 ‘처음처럼 (Feat. 개리)’, ‘감기 (Feat. 창모)’, ‘Why’, ‘미안해 널 사랑해 (Feat. 김필)’, ‘빛들에게 들으니 (Feat. 안예은)’, ‘어쨌든 반가워’, ‘Destiny, it's just a tiny dot.’까지 총 8곡으로 구성됐다.

헤이즈는 연주곡인 ‘Destiny, it's just a tiny dot.’을 제외한 1~7번 트랙의 작사, 작곡에 직



접 참여했다. 앞서 피쳐링 아티스트 티저 영상을 통해 예고돼 팬들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헤이즈의 새 피쳐링 파트너는 개리, 창모, 김필, 안예은이었다.

또 작곡가 유건형은 ‘해픈 우연’, 타블로는 ‘감기 (Feat. 창모)’, 기리보이·GLEAM·한요한은 ‘어쨌든 반가워’에 각각 작곡으로 공동 참여했다.

‘해픈’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영화로 기억하는 5·18’...광주극장, 아들의 이름으로 등 상영

5·18민주화운동 41주기 추모



광주극장이 5·18민주화운동 41주기를 다양한 영화로 추모한다.

광주극장은 5·18 4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21일까지 당시의 아픔을 다룬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빛, 좋은 공기’ 등을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오재근’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안성기를 비롯해 윤유선, 박근형, 이세은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관객을 만나는 임흥순 감독의 신작 ‘좋은 빛, 좋은 공기’는 1980년 전후 정부에 의한 학살을 경험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광주 비극을 교차 비교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영화이다.

22일에는 영화를 제작한 임흥순 감독이 광주극장을 찾아 관객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광주극장에서는 여행과 인종차

별, 전쟁 등을 다룬 영화가 관객을 만난다.

영화 ‘슈퍼노바’는 기억을 잃어가는 ‘터스키’와 마지막 여행을 떠난 ‘샘’의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는 시간을 기록한 드라마이다.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는 19일 개봉한다. 작품은 독보적인 작품들로 차별과 편견을 깨고 여성 작가 최초, 최고의 자리에 오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와 성장별과 인종차별을 뛰어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가까지의 여정을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영화 ‘쿠오바디스, 아이다’(20일)는 1995년 UN군 통역관으로 일하던 여성 아이다가 세르비아군과 보스니아 전쟁 당시 남편과 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안소닌 홀킨스), 각색상을 수상한 ‘더 파더’의 작품을 조명하는 시네토크도 21일 영화 상영후 열린다.

이승철·거미·솔라, ‘새가수’ 심사위원 합류

‘7090 레전드 가요 환생 프로젝트’...오는 7월 첫방 예정

KBS 2TV 새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새가수)는 가수 이승철·거미·솔라가 심사위원으로 발탁됐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7월 첫방 예정인 ‘새가수’는 초대형 오디션 프로젝트로, 앞서 7080 대표 가수 배철수가 심사위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승철, 거미, 솔라가 심사위원으로 가세해 ‘7090 레전드 가요 환생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준다.

‘새가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탄생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레전드 노래들을 2021년 현재대 감성으로 노래할 가수를 발굴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톱 보컬리스트들이 심사위원에 합류하게 돼 가수 발굴에 청신호를 켜다. 올해 하반기



기를 뜨겁게 달굴 ‘새가수’의 탄생을 기대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새가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20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나이, 성별, 국적이 제한 없이 70년대~90년대 노래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보아 오빠’ 권순욱 “암 치료 응원 감사...최대한 버텨보겠다”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욱씨가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후 받은 응원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권 감독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응원 감사하다. 덕분에 정말 많은 기운 얻었고, 치료의 고통은 심하지만 이 기운으로 최대한 열심히 버텨보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줄 전혀 몰랐고 치료 사례와 여러 병원, 교수님들에 대해서 추천해주실 줄 몰랐다”며 “저도 당장 이대로 죽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의사들은 왜 그렇게 싸늘하신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이 병이 너를 거라고 생각하세

요?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항암 시작하고 좋아진 적 없어요? 그냥 안 좋아지는 증상을 늦추는 것뿐입니다.’, ‘최근 항암약을 바꾸셨는데 이제 이 약마저 내성이 생기면 슬슬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슬슬하세요.’ 등의 말을 의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다른 병원 외래에 갔을 때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제 면전에서 저리 편하게 하시니 도대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조언들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시도, 저 시도 다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감독은 최근 복막에 암이 생겼으며 4기암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대여명을 2~3개월 정도로 병원에서 이야기한다”며 “장폐색으로 인해 식사를 못 한 지 2달이 넘어 몸무게는 36kg까지 떨어졌고, 몸에 물은 한 방울도 흡수되지 않아 갈증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되며 수액을 꽂은 채로 움직여야 해서 거동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글에는 보아가 “이겨낼 수 있다”고 직접 댓글을 남겨 오빠를 응원했다. 또 연예인들은 물론 누리꾼들이 잇따라 댓글로 권 감독의 회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

뉴스스